

범여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

호남 민심·DJ 지원 작용 통합민주당도 합류할 듯

지난해 10월 이후 무려 10개월을 끌어왔던 범여권 대통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매듭 지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을 제외하고 범여권의 제 정파와 시민사회진영, 순학규 전 경기지사

측이 합류함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의 주도권은 제3지대 대통합 신당으로 넘어갔다든 평가다. 대선은 5개월 앞두고 이뤄진 범여권 대통합 신당 창당의 배경과 대선 정국에서의 범여권의 정치적 역학구조 등에 대해 진단한다.

김근태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탄력

■신당 창당 배경

범여권 대통합은 각 당의 기득권 다툼과 범여권 대선 예비 주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김근태 의원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범여권 대통합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호남 민심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움직임은 범여권 대통합 신당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DJ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대통합을 주문한데다 호남

민심이 대통합만 이루면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결국, DJ의 암묵적인 지원과 호남 민심을 등에 업은 통합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광주시장, 전남지사 등과 함께 탈당 카드를 빼두고 대통합 일선에 나서 범여권 대통합 신당 창당의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파간 경쟁 대선후보 중심 재편될 듯

■신당 진로와 전망

24일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준위가 출범했지만 통합민주당이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팔소없는 전방'이라는 평가와 함께 신당의 주도 세력이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이라는 점에서 '도로

우리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상천 대표 체제의 통합민주당의 합류 여부가 대통합 신당의 성공적인 출범에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이해 관계가 다른 제 정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다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는 각종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의 소지가 있어 '불안한 동거'라는 시선도 있다.

별써 사·도당 조직 및 당직 구성 과정에서 제 세력 간 주도권 다툼 및 지분 싸움이 첨예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5일 대통합 신당이 출범하게 되면 당은 제 정파 간의 경쟁보다는 경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 생존 고집팬 초미니 정당 전략

■통합민주당 어떻게

박상천 체제의 통합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대통합 신당 측과 활발한 물밑 접촉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 생존을 고집할 경우 정치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탈당했으며 DJ의 후광을 입고 있는 김홍업 의원이 25일 탈당할 예정이다. 구 중도통합신당 의원 20명은 당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 참여, 박상천 대표가 다음달 5일까지 대통합에 나서지 않는다면 탈

당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태다.

독자 생존을 고집할 경우 통합민주당은 다시 9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략하는 것은 물론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지역적 기반이 붕괴, 정치적 생존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통합민주당은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보장한다면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의원 20명중 16명 참여

■지역정치권 재편

지역정치권은 급격하게 제3지대 신당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 전망이다. 전체 2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대통합 신당에 합류하거나 합류 예정인 의원은 16명이다.

체장과 지방의원, 지역위원장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일부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의 탈당이 25일로 예정돼 있다.

통합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인 김창남(장흥)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허정인(순천)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서일웅

(여수·울) 전남도의원 등은 24일 통합민주당을 탈당했다. 광주 동구 지역위원장인 김중배 전 의원과 정범석 남구 위원장도 이날 탈당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 15명과 광역의원 64명 가운데 40% 가량이 신당 합류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는 27일 광주시장 및 전남도당 창당을 전후해 탈당이 점쳐지고 있다.

/정후식·임동욱·박지경기자 who@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3지대 범여권 대통합신당 추진제인 기청 '미래창조대통합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위로부터 김두관 전 행정부총장, 김혁규 의원, 순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연평뉴스

“정권 재창출 위해 신당 합류”

우리당 탈당 친노 직계 서갑원의원



“이번에 범여권 대통합을 이루지 못해 정권 창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대통합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24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친노 직계의 서갑원 의원(순천)은 기자와 만나 “개인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편한 선택일 것”이라며 “그러나 친노그룹부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범여권 대통합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탈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지금은 범여권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며 모든 분들이 고충스럽고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여러 가지 섬세한 점도 있었지만 범여권 대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이 대통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범여권 대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며 “다음달 5일까지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 모든 제정파가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을 이룬다면 정권 창출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주장 부지 확보...F1 남은 과제는

24일 정부가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건설을 위한 간척지 우선사용 승낙을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막혀있던 서남해안 관광래저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숨통이 트였다. J프로젝트의 선도시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0년 F1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첫 매듭이 비로소 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행사인 F1대회가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아야 할 산도 많다.

J프로젝트 활성화 숨통 예산 확보·특별법 시급

◇J프로젝트 활성화 신호탄=F1경주장 부지에 대한 우선사용 승낙은 J프로젝트 전반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J프로젝트 예정 부지인 해남군 산이면·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3천만 평에 대한 양도·양수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사용 승낙은 앞으로 간척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척지 우선사용 승낙은 F1대회를 포함한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에 따라 간척지 우선사용 승낙이 J프로젝트 사업에 꼭 필요한 간척지 양도·양수 및 투자유치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설계는 이미 마무리=F1경주장 설계작업은 전문업체인 독일의 팀게사와 정림건축(건축분야), 도화종합기술공사(토목분야) 등 국내외 10여 개 전문업체가 참여해 이미 마무리됐다.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리 일대 간척지에 착공하게 될 F1 경주장은 상설트랙(3천47km)과 F1 트랙(5천684km) 등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서킷'이다. 경주장의 그랜드 스탠드 등 주요 시설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해 전남의 대표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

도록 설계했다.

◇자금마련 관건=F1경주장 전체 예상 공사비는 2천300억원. 막대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 지원과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자금유치 등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규모가 큰 몇 개의 기업 등이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전남도는 F1경주장 건설과 대회 진행을 위한 정부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또는 이전에 국회가 열릴 경우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간척지 우선사용승낙이 결정돼 F1대회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됐으므로 특별법 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시 열린 국회에서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투명성·수익성 제고 문제=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았던 대회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F1대회가 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J프로젝트의 시급성을 적극 알리고, 대회 운영과정의 공공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려는 복안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에 세워지는 F1 경기장 조감도.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총면적	1,000,000㎡	회원비	100,000,000원
회원수	100명	연회비	10,000,000원
골프장	18홀	코스	7,200야드
클럽하우스	1,000㎡	주차장	100대
골프카	100대	골프장	18홀